

4월은 ‘산불 공포의 달’

심어놓은 나무를 산불로부터 지키는 것이 더 중요

오늘도 많은 시민이 들로 산으로 나가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지만 산불 방지의 관점에서 보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 나무를 산불로부터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연평균 508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나서 서울 남산 면적의 13배인 4436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의 33%에 해당하는 168건이 1년 중 4월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일시에 30ha이상의 산림을 태워엎은 대형 산불만도 65건 가운데 50건이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1996년 단 한 건의 산불로 약 3700ha의 산림을 태움으로써 국가나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주었던 강원도 고성산불을 비롯, 2000년의 강원도 동해안산불(약 2만3000ha), 2002년의 충북 청양·예산산불(약 3000ha), 2005년의 강원도 양양산불(약 970ha)과 같은 초대형 산불이 모두 4월에 일어났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건조주의보 발령, 산불조심 홍보, 산불감시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체 관리하고 있는 42대의 헬기에다 기초자치단체가 임차한 38대의 헬기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1년중 4월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4월은 건조기인 탓에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대형화되기 쉬워

4월은 그 어느 달보다 상대습도가 낮은 일수와 강풍이 부는 날짜가 많은 등 기상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또 해동(解凍)과 더불어 등산·성묘·산나물 채취 등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의 부주의와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등의 농사일이 겹쳐 있다. 여기에다 숲가꾸기를 제때에 못한 탓에 건조기인 이맘때는 산에 기름을 부어놓은 것처럼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대형화하기 쉽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소나무숲이 상록침엽수여서 산





불에 약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지나치게 넓게 자라고 있어 건조기 강풍이 불 때 일어난 산불은 대형 재난으로 비화하게 된다. 다행히 산불방지 기술이 발달하고 장비가 많이 개선·보완돼 있어 이제는 건조기에 발생한 웬만한 산불이라도 강풍이 불지 않거나 동시에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는 한 웬만한 산불은 초동 진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건조기 강풍이 불어닥치면 위험

그러나 건조기 강풍이 불어닥칠 때 산불이 나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대형 산불, 초대형 산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건조기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계속 불면 불티가 날아 도깨비불처럼 사방 수 km까지 확산될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용 헬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고민거리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인가

산불뿐만 아니라 주택·공장의 화재를 비롯해 지



진·태풍·홍수·가뭄·산사태 등과 같은 재앙에 대비한 최상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예방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우리의 부주의이며, 건조기 강풍이 계속 불 때 일어난 산불은 대재앙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일단 산불 발생 위험경보가 발령되면 마스크와 온 국민 및 전 행정 부서가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을 때 대처하는 수준으로 참여할 때만이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태풍과 홍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몇백 년 앞을 내다보고 마을 어귀에 방풍림과 수해방비림을 조성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오늘에 되살리는 일만이 산불 공포의 달인 4월을 인명·재산의 피해 없이 조용히 넘기는 길이다.

〈글/홍성현(경북대 교수·임화)〉

*이 글은 문화일보 4월 5일자에 게재되었으며 필자의 허락을 받고 본 지면에 실었습니다.

